

조옥님  
(큐레이팅소사이어터 설립디렉터)

Jo Oknim  
(Curating Society Founding Director)

## 1960-70년대 엘리건스 인티어리어스社와 Knoll社의 교류: 장충섭의 구술을 중심으로 Exchanges between Elegance Interiors and Knoll in the 1960s-70s: An Oral History with Chang Choongsub

1. 들어가며
2. 엘리건스社와 Knoll社의 교류
  - 2.1. 전사(前史): 반도호텔
  - 2.2. 1968년 미국, 교류의 시작
  - 2.3. 가구 샘플 제작 그리고 기술 개선
  - 2.4. 엘리건스가 생산한 Knoll의 가구들
3. 나가며: 한국의 가구디자이너와 구술사 연구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2년 7월 8일  
심사일 2022년 7월 11 -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2  
Reviewed Date 11-25 July 2022  
Accepted Date 1 August 2022

### 요약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활동한 실내건축가들의 가구 제작 활동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한국가구사에 실내건축가들의 가구 산업 관련 활동상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 한국디자인사에서 실내건축과 가구 분야는 서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장르적 특성으로 연구가 더디었다. 공적 아카이브가 미비한 상황에서 특히 사적 아카이브 발굴이 중요한 영역으로, 개인 디자이너와 기업에 대한 인물연구와 이력조사 등 기초 연구부터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1960-1970년대 활동 인물들에 대한 생전 구술 기록 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장충섭(1939-)이 구술자로 참여한 구술 채록 연구 내용 중 엘리건스 인티어리어스(현 (주)계선)와 미국 가구회사 Knoll社의 교류사를 소개한다. 1960-1970년대는 해외 원자재와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경제 성장기였으나, 장충섭의 Knoll 가구 국내 생산과 수출은 주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수입 완제품으로 이해되고 있는 미스의 바르셀로나 체어, 브로이어의 체스카 체어 등이 1970년대에 국내에서 제작되어 일본에 수출되었던 역사를 소개한다.

### 핵심어

한국디자이너, 가구사, 실내건축가, 구술사,  
1960-70년대 한국 가구 산업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furniture industry in South Korea from the 1960s to the 70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furniture-making activities of interior architects.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consider the furniture business activities of interior architects as part of Korean furniture design history. When it comes to Korean design history, interior and furniture are underrepresented areas, mainly due to lack of primary sources. Investigation of basic information, such as biographical and chronological data, is, therefore, urgently needed. Furthermore, creating oral records with the corresponding figures in their old age is critical. This paper introduces an oral history project in which Chang Choongsub, the founder of Elegance Interiors, shares the history of exchange between Elegance Interiors and American furniture company Knoll Inc. In South Korean history, the 60s and 70s saw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from abroad. Compared to this general historical understanding, Chang led professional exchanges with Knoll, deviating from the linear introduction of overseas furniture. How Chang advanced furniture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Knoll, such as with regards to Mies van der Rohe's Barcelona chair and Marcel Breuer's Cesca chair, will be discussed.

### Keywords

Korean design history, furniture, interior designer, oral history, Korean furniture industry in the 1960s-70s

## 1. 들어가며

이 글은 (주)계선(이하 계선)의 장충섭(1939-) 회장의 구술을 바탕으로 (주)계선의 전신인 엘리건스 인터리어스(이하 엘리건스)와 Knoll International(이하 Knoll)의 교류사를 소개한다. 지금은 호텔, 백화점 등 상업 공간 전문 설계회사로 알려져 있는 계선이 1970년대에 가구 공장을 세우고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가구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했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한다.

계선은 장충섭이 1965년 1월 23일<sup>1</sup> 반도조선 아케이드 2층 239호에 '엘리건스 인터리어스'라는 이름으로 개업한 회사이다. 57년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설계 회사로, 설립 초기 외국 상사들의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출발했다. 설계부터 내장 공사와 가구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며, 맞춤 가구를 주로 제작했다. 이후 1975년도에 부천에 가구 공장을 세우며 가구 사업이 규모화되었으며, 해외 가구 회사의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키워갔다. 1979년 회사가 법인화되면서 계선산업 주식회사(현 (주)계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88년 오피스 가구 전문 (주)계선오피스 시스템을 설립했으며, 1991년 이천에 가구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이후 IMF를 거치면서 공장은 폐쇄되고 가구 사업이 축소되면서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Knoll사와의 교류내용이다. 장충섭은 1968년 Knoll과 미국에서 국내 생산권 논의를 시작하여 1970년대에 Knoll의 가구 일부를 국내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당시 국내 생산 품목은 장충섭 회장이 직접 지정했고, 미스(Mies van der Rohe)의 바르셀로나 의자(Barcelona Chair)와 브루노 의자(Bruno chair),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체스카 의자(Cesca Chair)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즘 국내 가구 시장에서는 미드 센추리 모던의 유행으로 인하여, 미술관이나 경매장 등 특정 공간에서 주로 수집과 관람의 대상으로 머물던

20세기 디자인 마스터피스 가구들이 대중 취향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100% 수입 가구로 취급되는 Knoll의 가구가 반세기 전에는 국내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한국가구사에 추가적 서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엘리건스사와 Knoll사의 교류

### 2.1 전사(前史): 반도호텔

Knoll 가구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엘리건스 설립 훨씬 이전,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정부가 미국에 기증했던 반도호텔을 다시 매입하여 진행한 개보수 작업이었다.<sup>2</sup> 장충섭은 당시 개보수 작업을 맡았던 디한(Norman DeHaan)이 Knoll 가구들을 한국에 들여왔다고 구술했다. 디한은 시카고 출신의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정부의 건축 자문<sup>3</sup>으로, 1957년에서 1959년까지 운영되었던 한국공예시험소의 초대 디렉터로 활동한 인물이다.

\* — 장충섭의 구술채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ACC-2020-RF-04) 구술채록은 2020년 10월 13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 Knoll은 판권이 유럽과 미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장충섭 회장이 교류한 쪽은 미국 Knoll이었다.

1 — 반도조선 아케이드의 개업일과 동일한 날짜이다.

2 —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반도호텔 개보수 작업에 참여했던 장충섭은 디한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공간설계를 직업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1963년 졸업)에 진학한 것으로 구술했다.

3 — 1990년 8월 31일 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디한의 부고 기사에서 한국에서의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Norman DeHaan, 63, Architect and Designer", <https://www.nytimes.com/1990/08/31/obituaries/norman-dehaan-63-architect-and-designer.html>, (2021.11.1)



[그림 1] 반도조선 아케이드 사무실에 앉아있는 장충섭. 1965년경 추정(사진 출처: (주)계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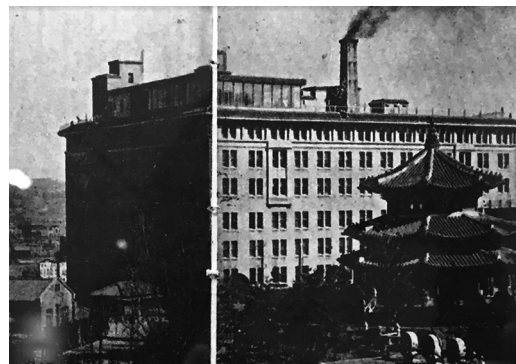


[그림 2] 반도조선 아케이드 시절에 만들어진 엘리건스 서식류 표기문구<sup>4</sup>(사진 출처: (주)계선 제공)

4 — 가구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설계전문회사로 알려진 현재의 인지도와 달리, 회사 설립 초기 장충섭 회장의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면모와 가구 제작 활동 흔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림 3] 반도호텔 홍보물. 1950-1960년대 추정(사진 출처: 롯데호텔 호텔 박물관 전시실, 연구자 촬영)



[그림 4] 1954년 관광객자 숙 반도호텔 전경. 반도호텔 상층부에 유리창이 둘러진 스카이라운지가 보이면 개보수 작업 이후의 사진이다.<sup>5</sup>(사진 출처: 롯데호텔 호텔 박물관 전시실, 연구자 촬영)

[그림 5] 1960년에 오픈한 Knoll社의 LA 쇼룸 전경. Florence Knoll이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다. 장충섭 회장이 1968년에 방문했을 당시의 풍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사진 출처: knoll.com)



5 — 장충섭이 디한과 함께 작업한 부분으로, 스카이라운지 공간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도 일부 구술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객실에는 사리넨(Eero Saarinen)의 움 체어(Womb Chair, 1946년, Knoll은 1948년부터 생산), 식당에는 사리넨의 모델 71(1950년, Knoll은 1950년부터 생산), 스카이라운지에는 베르토이아의 와이어 컬렉션 의자(1950년, Knoll은 1952년부터 생산)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Knoll에서 출시한 지 몇 년 안 된 의자들이 큰 시차 없이 들어왔던 흔적이다.

## 2.2. 교류의 시작

장충섭은 반도조선 아카데미에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해인 1966년에 미국행을 선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nited Design Associate<sup>6</sup>에서 1968년까지 근무했다. 회사 근처에 있던 Knoll의 쇼룸을 자주 들리던 장충섭은 귀국 전 뉴욕에 있는 Knoll 본사를 찾아가고 부사장이었던 헬름(John Helm)을 만나게 된다. Knoll 본사에서는 1954년경 한국 반도호텔에 큰 판매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된다. 당시, 가구 수입이 어려워 국내에서 직접 Knoll 가구를 만들고 싶었던 장충섭은 Knoll의 가구 샘플을 제작해 보이면서 국내 생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류를 시작한다.

## 2.3. 가구 샘플 제작 그리고 기술 개선 및 전수

미국 Knoll 본사와 친분이 있던 장충섭은 Knoll Japan의 설립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의자 샘플을 일본에 가져가 보여주었다. 샘플을 본 Knoll 측 사장단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작업장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부족한 생산 설비 문제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장충섭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직접 베르토이아(Harry Bertoia)의 다이아몬드 의자(Diamond Chair) 샘플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와이어 메시 성형 품질을 인정받게 된다. 다이아몬드 의자는 Knoll에서 1952년도

제품 발표 당시, 소량만을 제작하여 출시하고 개발부에서는 대량 생산 방안을 마무리 중이었던 제품이다. 장충섭은 이 의자는 직접 개발한 용접 기구를 Knoll에 전했다고 구술했다.

“장: 고 다음번에 갔을 때. 미국에 갈 때 Harry Bertoia의 Diamond Chair 샘플을 하나 가지고 갔어. 그거의 약점을 내가 알았어.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쭈그러져.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개선을 해주려고, 한 일 년 동안 해서 성공을 했어. 그 샘플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갔어. 그랬더니, 설계는 다 똑바로 되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대로 완벽해. 그 디자인한 Harry Bertoia가 와서 이거 자기 달라고 해서. 자기가 산다고.

조: 그 샘플을?

장: 응, 그 샘플을. Harry Bertoia한테 줬어.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줬겠어.

조: 그냥 주고 오신 거예요?

장: 응, 자기가 설계하고 이렇게 완벽한 제품이 나온 게 처음이래.

조: Harry Bertoia 입으로?

장: 응, Knoll에서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장: 플라스틱 형태에다가 용접하는 곳 구멍을 뚫어가지고. 용접을 할 때, 용접기의 그 열이, 시간이 미국에서 만든 게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100분의 1초로 열을 가해가지고 변형이 안 오게. 그 용접기를 내가 이리 영등포를 뛰어다니고.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용접기를 만들어서. 열이 전도되기 전에

6 — 저그(Jerome Zerg)에 의해 1959년도에 설립된 회사

이건 이미 융접이 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형태가 그대로 되죠.”<sup>7</sup>

미스의 브루노 의자 같은 경우는, 단관 파이프를 구부려 만든 캔틸레버 조형으로 형식과 재료 면에서 혁신적인 의자로 유명했지만, 사실 Knoll에서 대량 생산한 의자들에는 상부와 하부에 접합선이 남아 있어 진정한 단관 파이프 조형이라고 볼 수 없었다. 장충섭은 파이프 재료를 크롬도금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꾸었고 처음으로 접합선을 완전히 없앴다. Knoll에서 단관 파이프 의자 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자신의 기술 전수 시점 이후인 것으로 구술했다.<sup>8</sup>

“장: 그 후에도 Knoll에 contribution(기여)은 많이 했어요. 내가.

조: 보이지 않게.

장: 아니 아주 보이게.

조: 또 어떤 게 있나요.

장: 지금 앉아 있는 의자도 이렇게 돌려보세요. 거기 옆으로 지나가는 파이프, 튜브가 그게 중간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바닥도 그렇고.

조: Knoll은? 이걸 한 (파이프로 만드셨군요).

장: 하나로 했어.

조: 이게 계선이 처음 인가요?

장: 네, 처음이에요. 이 의자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약속대로, 기술까지 무상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 Knoll한테 이거

했으니까 나 100불을 달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줬더니. 뭐 깜짝 (놀라지).

너무나 간단해. 이 사람 네들이 (보기에).

내가 조립하는 공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조: 하나의 파이프로 이게 된다.

장: 응, 하나의 파이프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지, 저희는(Knoll사는).

이제 먼저 것은 없어졌지.

조: 그럼 지금은 그 뒤로는 Knoll은 계선 장충섭 회장님에게 노하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군요.

장: 그럼요. 근데 아마 지금 생산하는 것도 대체 누가 이렇게 해냈는지도 모를 거야.”<sup>9</sup>

이처럼 Knoll에는 설계 의도와는 달리 마감이나 완벽하지 않은 대량 생산 제품들이 있었고, 제작비 대비 판매 비용 효율이 좋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제품들도 있었다.<sup>10</sup> 이런 난점들을 해결한 샘플들을 제시하고 기술 및 도구까지 전수해주면서 장충섭은 Knoll의 인정을 받게 되어 국내 생산권과 Knoll Japan으로의 수출권을 따게 된다. 나중에는 Knoll의 품평회에 패널로 초대되기도 하는 등 깊이 있는 교류가 이어졌다.

7 — 조옥님, 「1960-70년대 한국 근대 가구사: 실내건축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문연구 연구 프로그램 연구논문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2020), pp.85-143, p.108

8 — 접합선이 없는 완벽한 단관 파이프로 처음 성공한 Brno chair은 (주)계선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중이다.

9 — 조옥님, 「1960-70년대 한국 근대 가구사: 실내건축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문연구 연구 프로그램 연구논문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2020), pp.85-143, p.114

10 — Knoll에서는 생산을 중단한 모델 130 의자(안드레 뒤프레의 1948년 디자인, Knoll은 1948-1955년 생산)를 장충섭은 한국에서 다시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았던 의자로 구술했다.



[그림 6] 1985년경 엘리건스 소유 가구 촬영 스튜디오 모습<sup>11</sup>(사진 출처: (주)계선 제공)

11 — 자체 촬영 스튜디오를 보유했던 것에서 규모의 가구 사업을 운영했던 면모가 엿보인다. 중앙 하단에 보이는 컨트롤 박스에 '엘리건스'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다. 창업 회사명이었던 '엘리건스'는 법인화 이후에는 가구 브랜드화된 면모를 보인다. 보루네오, 한샘 등과 나란히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했던 가구회사로서 기록될 필요가 있다.

## 2.4. 엘리건스가 생산한 Knoll의 가구들

구술과 (주)계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엘리건스가 생산한 Knoll 가구는 체스카 의자<sup>12</sup>, 바르셀로나 의자<sup>13</sup>, 브루노 의자<sup>14</sup>, 다이아몬드 의자<sup>15</sup>, 사이클론 테이블<sup>16</sup>, 모델 130<sup>17</sup> 등으로 6개 품목이 파악되었다. 이 외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의 70 시리즈, 71번과 72번도 스튜디오 촬영 사진이 남아있어 국내 생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목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장충섭은 엘리건스의 Knoll 가구 생산 기간에 대해 1968년에 Knoll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 후 십 년 정도 가구를 제작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나 현재 (주)계선이 보유 중인 가구를 촬영한 많은 필름들이 198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1980년대까지 Knoll 가구 생산과 수출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기록 촬영이었는데 대해 후속 구술 채록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엘리건스가 제작한 Knoll社 가구 유통에 대해서 장충섭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구술했다. 1980년대 잡지 속 건축 사무실 실내 사진이나 디자인 회사 사보 속에서 Knoll 가구들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장충섭은, 당시는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던 시기로, 계선에서 만든 것이 흘러 나간 것으로 답했다. 그러나 국내 유통이 추정되는 사료가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 예정이다.

## 3. 나가며: 한국의 가구디자인사와 구술사 연구

엘리건스社와 Knoll社의 교류는 한국의 바우하우스 디자인 수용 측면에서도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디자인사적으로 새로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장충섭이 생산했던 품목 중 미스와 브로이어의 의자 원형은 1920-30년대

바우하우스의 대표적 가구 디자인들이다. 지금은 하나의 사조가 된 바우하우스 조형은 양식적으로 추구하고 도달했어야 할 정전처럼 여겨진다. 사실, 바우하우스 조형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온 디자인 양식이다. 조명과 가구의 대량생산을 추구하고 시도했지만, 기계 생산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수공예 생산방식으로 만들어졌거나, 저작권 분쟁을 겪기도 했으며, 아직 대량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시제품 상태였던 것들도 있었다. Knoll社의 가구들이 장충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선형적 전파와 수용이 아니라 제작 기술 개선에 일조했던 주체적 면모가 돋보인다.<sup>18</sup>

디자인사는 미술사적 양식과 사조 구분 및 원작자 중심의 전통적 해석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 의자들 조형의 원작성은 유럽에 있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기여한 미국 기업 Knoll, 그리고 제작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 한국의 디자인 회사 엘리건스와 장충섭은 각 위치에서 역할과 기여가 있었다.

한국디자인사에서 가구디자인은 사적 연구가 미비한 영역으로, 더구나 양식적 해석이 주를 이루던 분야이다. 디자인이라는 장르의 실체는 하나의 시각적 조형을 만들어내는 스타일링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제작과 판매, 유통, 사용까지 아우르는

- 12 — 마르셀 브로이어의 1928년 디자인, Knoll은 1948년부터 생산
- 13 — 미스 반 데어 로에의 1929년 디자인, Knoll은 1969년부터 생산
- 14 — 미스 반 데어 로에의 1930년 디자인, Knoll은 1960년부터 생산
- 15 — 해리 베르토이아의 1952년 디자인, Knoll에서 1952년부터 생산
- 16 — 이사무 노구치의 1954년 디자인, Knoll에서 1955년부터 생산
- 17 — 안드레 뒤프레의 1948년 디자인, Knoll에서 1948-1955년 생산
- 18 — 또한, 장충섭은 국내 생산 가구 목록은 Knoll社의 개입 없이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고 구술했다. Knoll社의 한국 시장 개척 의지로 시작된 교류가 아니라, 장충섭의 가구 제작에 대한 의지에서 출발된 교류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림 7] (주)계선이 제작한 Knoll 가구들 사진. 촬영 시기는 1980년대. 좌측 상단에서 좌우 순서 1. 체스카 의자, 2. 브루노 의자, 3. 사이클론 테이블, 4. 바르셀로나 의자(사진 출처: (주)계선 제공)

영역이다. 가구디자인사는 원형의 원작자 이외에, 각 단계에서 개입하게 되는 다양하고 무수한 주체들의 기여도 또한 분명히 살펴야 한다.

영국 디자인사 연구가 커크햄(Pat Kirkham)은 20세기 디자인사가 인물 연구를 생산해낸 것은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새로운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했다.<sup>19</sup> 가구디자인사도 마찬가지로 인물 중심의 유명 디자인에 집중된 한편, 제작 관련 상세 기록이 부족하며, 그리고 문화 연구와 기호학에서 도입한 연구 방법이 있지만 가구역사 연구에 뚜렷한 영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의 가구가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이외에 기획자, 제작자, 관리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기억이 1차 자료로서 중요하며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술사 연구는 가구디자인사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sup>20</sup>

한국 가구디자인사를 위한 구술사는 1차 자료의 부재를 채우기 위한 대안적 도구 이상으로 연구 모델 제시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가구 영역은 연구 대상의 선정과 문헌 연구부터 사료 수집, 연구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역사 서술에 난점이 많은 영역으로, 디자인 행위 주체의 적극적 개입과 실체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과 아카이빙이 요구된다. 구술사 연구의 전문화와 사례 모델의 축적은 디자인사 학계가 양식사적 해석에서 벗어나 독립적 해석과 연구 방법론을 넓혀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구술 채록 연구 결과를 1차적으로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장충섭 회장이 구술한 (주)계선의 초창기 '엘리건스 인터리어스'에 근무했던 인물들에 대한 구술 채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사료 연구를 확대하여 사적 검증과 해석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다. 

19 — Pat Kirkham, "Furniture History", (ed.) Hazel Conway, (*Design History: A Student's Handbook*, New York: Routledge, 2005), pp.58-85, p.65

20 — Pat Kirkham, "Furniture History", (ed.) Hazel Conway, (*Design History: A Student's Handbook*, Routledge, 2005), pp.58-85, p.63

## 참고문헌

- 조옥님, (2020), 「1960-70년대 한국 근대 가구사: 실내건축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문연구 연구 프로그램 연구논문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 카타리나 베렌츠, (2013), 『디자인 소사小史: 만국박람회에서 에코 디자인까지, 디자인 160년사를 읽다』, 오공훈 옮김, 안그라픽스
- Hazel Conway, (2005), *Design History: A Student's Handbook*, New York: Routledge
- Knoll, <https://www.knoll.com>

## 그림 차례

- [그림 1] 반도조선아케이드 사무실에 앉아있는 장충섭. 1965년경 추정
- [그림 2] 반도조선 아케이드 시절에 만들어진 엘리건스 서식류 표기문구
- [그림 3] 반도호텔 홍보물. 1950-1960년대 추정.
- [그림 4] 1954년 관광객자 속 반도호텔 전경. 반도호텔 상층부에 유리창이 둘러진 스카이 라운지가 보이면 개보수 작업 이후의 사진이다.
- [그림 5] 1960년에 오픈한 Knoll社의 LA 쇼룸 전경. Florence Knoll이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다. 장충섭 회장이 1968년에 방문했을 당시의 풍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그림 6] 1985년경 엘리건스 소유 가구 촬영 스튜디오 모습
- [그림 7] (주)계선이 제작한 Knoll 가구들 사진. 촬영 시기는 1980년대. 좌측 상단에서 좌우 순서 1. 체스카 의자, 2. 브루노 의자, 3. 사이클론 테이블, 4. 바르셀로나 의자